

# 하나님의 다스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사야 63:15~64:1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짓밟히는 현실에 분노하며,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함을 바라보며 절규합니다.

사역자지만 많은 부분 현실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미숙한 모습과 죄성에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순복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엄중한 질문 앞에 서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다시 무릎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드십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드림 업 캠프

카트만두에서 9명의 러수아 학생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드림 업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카트만두에 처음 올라온 친구들이라 많이 낯설었을텐데, 박터풀 교회 청년들이 함께 섬겨주어 풍성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나누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마음에 남습니다.

비록 지금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중에 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하며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 발라주 & 박터풀 교회

발라주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멈추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 함께하는 선교사님과 여전도회는 말씀으로, 청년부는 성경 공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잘 따라오며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며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박터풀 교회는 무엇보다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드림 업 캠프, 겨울에는 러수아 캠프를 섬기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 그레이스 바이블 신학교

이번 가을학기에는 20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저희는 수업 과정 중에서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를 가르쳤고, 3개월간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건강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헤따우다 지역 방문

히말라야 선교에 있어서 중부지역 핵심지역인 헤따우다를 방문해 지역 목회자들과 연합을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네팔 지방은 신학을 제대로 배운 목회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훈련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필요에 따라 사역자 훈련과 여름/겨울방학 팀사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pecially 작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Bijay형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Bijay형제는 많이 회복되어 지금은 직장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트럭을 운행했는데 수술비 마련을 위해 트럭을 팔았다고 합니다. 주님 예 비해 주셔서 일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카트만두에서 러수아 대학생 모임이 열린다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지난 6월 드림 업 캠프에 참석한 이들 중에 몇몇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을 위해 카트만두에 올라왔습니다. 러수아 방과후 학교 사역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어서 멀리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생 그룹이 생겨 예상보다 빨리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께서 복음을 나눈 Amit형제가 모임을 위해 자신의 학원을 내어주어 장소가 예비되었고, 이곳에서 5~6명의 러수아 친구들과 함께 9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네팔 주일은 토요일), 예배와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오기 전에 자료를 주어 미리 연습하게 하는데, 성실하게 준비해 오는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 러수아 캠프

3박 4일 동안 러수아에서 방과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경&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동역자 선교사님들과 박터풀 교회 집사님 및 청년 21명과 함께 낮에는 어린이 캠프, 저녁에는 청년들과 러수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텐트치고 숙식하며,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청년들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와 기쁨으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THN 연합사역

그동안 THN이 걸어왔던 기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히말라야 안에 영광받으실 주님의 대로를 구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향후 10년의 비전은 히말라야 내의 미전도 방언종족들의 실제적인 영혼구원을 이루어 선교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실행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행위원회 미팅을 통해 네팔선교 필요거점 우선순위를 정하고, THN 공동사역을 통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논의하며 실행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 - 방언 종족의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 차후 선교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허브역할 지역
- 선교 자원의 접근이 쉬운 곳



##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시간들

저희 가정은 둘째를 위해 아내가 한국에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혼자 네팔에 들어온 저는 사역가운데 바쁘게 지냈지만, 아내와 아기를 향한 그리움으로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홀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 시하는 코로나 급성후두염으로 입원하기도 해서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여름, 협력 선교사님 교회 단기선교팀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단기팀이 선교사 한분 한분 위해 기도해주고, 특별히 한 자매가 찬양을 불러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노래는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랑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면서 찬양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셋이다.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조산 위험이 있어 아내가 임신 24주때 입원했는데 29주 5일째 아이가 나왔다. 하루를 더 지내면 아이가 잘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 지니까 아내가 5주를 버틴 셈인데, 그 하루가 정말 감사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40일 넘게 있었다. 미숙아로 태어나다보니 폐가 덜 발달해 무호흡증을 일으키곤 했다. 너무 무서웠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를 깨달았다. 아무 노력없이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꼈다. 최에스더 사모가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다가 한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요게벳을 만났다. 거기서 나온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만들었다.”

-염평안 작곡가 인터뷰 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보호자시며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7월에 시도했던 시험관으로 임신이 되었다가 화학적 유산이 되었는데, 8월에도 피수치(임신히르몬)가 잘 떨어지지 않아 몸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시하가 네팔에 와서 한달 반 정도 지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학생들 사역을 했던 아내는 러수아 대학생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한국에 가야 했을 땐 모두가 얼마나 아쉬워 하던지, 빈자리가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네팔에서 좀 더 다양하게 섬기기 위해 학위가 필요했는데, 대학교를 휴학했던 아내가 미국 소재 VINE UNIVERSITY 대학교에 편입해 수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교 총장님께서 네팔에 오셔서 박사, 석사, 학사 졸업식을 주관해 주셨는데, 마침 타이밍이 맞아 아내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학사모를 써본다며 설레어 하는 아내를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네팔에 계속되는 지진

11월 3일, 서쪽에서 5.6 규모의 지진으로 최소 128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습니다. 카트만두에서도 집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진 지역은 최초 강진이 한밤중에 일어나 주민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데다 집들이 주로 흙과 돌 등으로 지어져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게다가 마을이 대부분 산악지대에 있어 구조대의 육로접근이 어렵고,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나 길마저 일부 끊겨 구조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진 뉴스가 날 때마다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저희는 안전하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팔은 지진이 잦은 땅입니다. 2015년에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900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카트만두에도 이번 달에만 여러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우리의 안전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 기도

### 1. 리수아 & 램자콧 방과 후 학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섬기는 선생님들이 성실과 지혜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2. 그레이스 바이블 신학교

카트만두 대학생 성경 공부반

발라주 교회, 청년 수련회 & 유초등부 성경캠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훈련되어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3. THN 히말라야 연합모임

각 가정과 팀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分別하고 순종하여 THN 공동사역을 통해 소외된 지역에 복음이 확장 되길 기도합니다.

### 4. 가정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편지가 늦어 그동안의 내용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 신민철 & 함은진 & 신시하 드림